

곽호상 총장 취임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끌 것”

금오공대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20일 ‘제8대 곽호상 총장 취임식’이 교내 청운대에서 열렸다고 최근 밝혔다.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0명 미만의 내·외빈만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금오공대 6대 총장을 역임한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을 비롯해 흥원화 경북대 총장, 권순태 인동대 총장, 박판우 대구교대 총장, 한성욱 경운대 총장, 황병관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학장 등 대구·경북지역 총장이 참석했다.

또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회장을 비롯해 5대 총장을 역임한 우형식 한림성심대 총장과 7대 총장을 역임한 이상철 교수, 금오공대 객원교수 발전후원회장, 금시태 총동창회장, 신현호 최경과정 총동창회장, 원종욱 대한학원총동창회장, 김삼호 교수회장 등이 참석해 곽호상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곽호상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강한 금오공대’를 향후 대학의 비전으로 제시하며, ‘주목받는 대학, 앞서가는 대학, 백년가는 대학’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pjh2020@meconomynews.co.kr

경북도, 제20대 대선 지역공약 35개 프로젝트 제안

‘지방시대 선도’ 위해 수도권 인구분산, 교육혁신시범도시 요구
신공항·동해안 글로벌 경제권 구축, 미래 모빌리티 등 경제 대전환
원자력 복원, 그린수소 플랫폼, 독도 기후변화섬 등 탄소중립 제시

경상북도가 다가오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차기 정부 지역 공약으로 7대 목표 35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지난 2월부터 자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동시에 시군, 공공기관, 연구단체, 대학, 도민들로부터 정책 아이디어를 조사해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대담한 제안이다.

경북도는 광역행정통합 지원과 함께 수도권 인구 분산에 대한 국가 계획을 요구하며 그 실행방안의 하나로 인구유동성 확장을 위해 마련한 두 지역살기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과 한국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을 요청했다.

또 지방소멸 위험지수 1위에 해당하던 의성에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인구감소 시군에 1개소씩을 설치하고 혁신형 벤처타운을 조성해 지방에서도 청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대학 위기와 관련하여서는 교육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로 이양해서

지자체와 지방대가 함께 지역혁신과 대학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혁신 시범도시 사업을 제안했다.

경북도는 이를 토대로 디지털 인프라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이 보유한 오프라인 공간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해 혁신을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해 공공 의대 및 연구중심 의대, DGIST 경북캠퍼스, 농수산대학 분원 설치 등도 요구했다. 지역경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권 형성과 함께 미래형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경부선 라인 제조벨트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ICT 빅프로젝트, 네이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 분야 기술산업화 및 거점 조성 지원을 요청했다.

또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김천-신공항-의성간 철도, 북구미-군위간 고속도로 등 연계교통망 구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능형 드론 및 UAM 융합 산업, 한국항공교육원 설립과 전문인력

양성, 남부권 소형항공기 MRO 특화단지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조성 등 신공항 연계발전 사업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동해안을 중심으로 포항공항의 주변국 단거리 해외노선 추진과 울릉공항 최단거리 연계, 신북방시대 환동해 물류·자원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영일만항 기능 강화와 포트체인 특화구역 지정, 후포항 ‘울릉항’ 강구항 등을 잇는 산업형 항만 및 무역항 조성을 요청했다.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가속기 기반 연구산업단지, 인공지능 제조혁신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ICT 빅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세계인이 즐기는 경북을 위한 문화관광 분야에는 동해안 신북방 관광벨트, 낙동강 문화관광 르네상스, 백두대간 스마트 힐링 관광 등 경북의 핵심 지구를 연계한 관광 사업을 제안했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농축수산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항공 특화단지 등이 포함된 경북 푸드밸리 조성, 스마트 정밀농업 클러스터와 미래 첨단 사파리 조성 등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대학을 융합해 경북농업과학기술원(GAIST)을 설치하고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기술기반 벤처창업타운을 조성하는 애그로 테크노 밸리(Agro-techno valley) 등 혁신 생태계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경북도

구축 사업도 제안했다.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석포제련소 인근과 지류 생태계 복원사업을 요청했고, 독도의 청정이미지와 국가적 상징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독도 기후변화 지표점 프로젝트’ 등 경북형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사통팔달 SOC에는 교통망이 현저히 부족한 경북 지역의 관광, 산업 분야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이 미흡했던 사업 중 꼭 필요한 SOC사업

들을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차기 정부는 반드시 지방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 행복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경북도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각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기관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강승탁 기자 stking12@meconomynews.co.kr

경북도, 물기업 지원 유관기관 협력기반 다져

물산업 지식연구회·물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
유공 기업 표창, 신규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 사업설명

경상북도는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산업 지식연구회 및 물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물산업 선도기업 대표들과 물산업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식연구회 및 워크숍은 경북도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의 연구기관이 협업해 물산업 기업들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13회째를 맞는 물산업 지식연구회는 대표적인 산관연 협력 정보 공유의 장으로 2017년 9월 출범했다. 지금까지 물기업체에 34건의 연구개발과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 경북 물산업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연구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박기택 부강테크 부사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사업인하수처리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하수처리 공법 신기술 사례’에 대해서 소개했다.

또 박민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용화 지원’에 대한 사업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복주(물탱크), 우리기술(유량계, 수위계), 퍼팩트(상하수도관, 오수받이, 맨홀) 등 3개 기업에 대해 물산업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했다.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물산업 지식연구회 및 물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 장면. 사진=경북도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역의 물기업이 세계 물산업 시장에서 강소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대표들께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물산업 선도기업 지정은 지역물관련 기업 가운데 성장가능성이 높고 수출역량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글

로벌 시장을 이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공모를 통해 신청 받은 물기업과 내년에 지정기간(5년)이 만료되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 초 제품경쟁력, 수출역량, 성장가능성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종합평가를 통해 신규기업 2개사와 재지정기업 8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박진호 기자 pjh2020@meconomynews.co.kr

대구시, 콘텐츠 창업 시설 ‘디코’ 개관

“혁신인재 1500명 양성”

대구시는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육성시설과 창업지원주택 복합 모델을 발굴해 2018년부터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 등 총 3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8월 준공된 대구 콘텐츠비즈니스센터(이하 DCOE(디코))의 개관식을 22일 개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대구시는 지난 2002년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혁신 문화산업 클러스터인 대구 ICT PARK를 운영했으나, 2018년 임대 공간 반납으로 인해 기존 성과의 연계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선제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2016년 국토교통부와외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기업육성시설과 창업지원주택이 복합된 특화모델을 도출했으며, 국비 100억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 콘텐츠비즈니스센터 개관식을 열고,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원, 지방비 20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구(舊) 스마트벤처캠퍼스 부지(동대구로 467)에 2018년 12월 착공해 올해 8월에 센터(DCOE(디코))를 준공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지역 게임 기업들의 매출과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는 등 지역 콘텐츠 기업들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수 도관 최대의 콘텐츠 기업 거점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즐겁고 기업이 행복한 문화콘텐츠도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승탁 기자 stking12@meconomynews.co.kr

함께하는 연호, 도약하는 포항

해양관광도시 1번지 포항

드라마촬영지 각광! 언택트 힐링명소

‘해양관광 1번지’ 포항시에 각종 드라마, 다큐멘터리, 예능프로그램들이 문전성시
천혜의 자연 경관 푸른 바다를 품은 역동적이고 아름다운
포항의 명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포항시 pohang